

3/22/15

설교 제목: 예수님이 걸어 가신 십자가의 길 5 (율법의 완성자 예수)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 5:17-20

(마 5: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 5: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 5: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 5: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돌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았거나 소문으로 들은 허다한 무리들이 영똥한 세상적인 생각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 4:23)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 4:24)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 4:25)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피해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의 가르침을 일컬어 산에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설교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 5 장부터 7 장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참된 크리스찬은 썩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은 방부제의 역할과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네 구절인데 앞의 두 구절과 뒤의 두 구절이 구분됩니다.

앞의 두 구절인 17-18 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뒤의 두 구절인 19-20 절은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7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 5: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당신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 소중히 지키고 있는 율법 즉 구약을 벗어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런 연유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대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언약을 매우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오실 것으로 예언되었던 메시아라고 하시며 다니시는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래서 자신들이 소중하게 지키는 그 율법에 자신들만큼 목숨거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시다. 아니 목숨을 걸기는 커녕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행동과 말씀을 하고 다니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 때때로 율법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안식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 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얹은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눈에 이것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으로 비추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 그중에서도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하여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 나귀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 내지 않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합당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니다가 배가 고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밭에서 밀 이삭을 훔터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의외로 제자들을 책망하시지도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다윗은 성전 안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며 별 대수로운 일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꼭 손을 씻고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불결하게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 에 예수님께서서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속으로 들어간 것은 다 뒤로 나오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대답하셨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과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폐하려 오셨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알려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해 유대인들은 글자 그대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그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에게 노를 품고 있다면 그것도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조차 품지 않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말 속에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구약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가 구약의 말씀을 완성시킨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은 일점일획까지 다 의미가 있으며 그 구약의 율법에 예수님의 은혜가 더해져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4 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롬 10:4)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었습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과, 재판할 때 사용했던 모든 규례와 법칙이 있는 민법,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되었던 의식법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에 의해 확인되었고 예수님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서, 즉 구약 전체는 온통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마 5: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세도, 출애굽도, 십계명도, 성막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언자들의 모든 예언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약이 완성되었고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성경의 예언은 모두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후반 두절에 나오는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살펴 보겠습니다.

(마 5: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본문에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계명 중에는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나 봅니다.

마태복음 22:37-40 을 보겠습니다.

(마 22: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 22: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 22: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 22: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고, 사람에게 대한 계명은 두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나 지극히 작은 계명, 즉 둘째되는 계명이나 모두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선 누구 못지않게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해야 하는 계명에 대해선 무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거나 어떤 사람을 위기에서 건져주셨을 때 그들은 고통 받았던 사람들이 그 고통으로부터 치유되고 위기로부터 건져진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단지 안식일을 범한 일에만 관심을 가졌고 그러기에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너무나 열심인데 사람의 일에는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경우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경배했지만 동시에 죄인의 친구였고 창녀와 병든 자의 친구였습니다.

말하지면 예수님은 첫번째 율법도 두 번째 율법도 모두 성실하게 지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핑계 삼아 사람에게 대한 율법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형제를 미워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일 4:20-21)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만큼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 진정한 율법의 요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 5: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는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이기도 하며 본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저 사람은 진실한 크리스찬이다"라고 여겨지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지식과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진실한 크리스찬은 비록 큰 일은 하지 않을지라도, 비록 위대한 웅변가는 아닐지라도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입니다.

이 의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의가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시며 어느 정도의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 갈 수 있는지 그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가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천국에 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외적으로 완벽하고 행위로는 따라 갈 수 없을 만큼 대단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아닙니다.

다시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했던 의가 왜 잘못된 의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의 의는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의입니다.**

마태복음 23:25 에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만 점잖은 척하고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걸치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주일날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도, 봉사도 잘합니다.

그러나 속을 드러다 보면 지저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 속에 섞여 있을 때 하는 행동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자리에 있는 저도 진정한 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위해서는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은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계실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둘째, 그들의 의는 부분적인 의였습니다.**

마태복음 23:23 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재정 러시아가 망할 때 성직자들은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나 앉을 수 있나? 성직자는 무슨 색가운을 입어야 할 것인가?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나 교인들이 본질적인 문제보다 부분적인 문제 예를들면 건물, 제도, 교파 등등의 문제로 돈과 시간, 그리고 힘을 낭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셋째, 그들의 의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의가 아니라 사람에게 의해 재해석된 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재해석한, 즉 사람의 입으로 내려오는 얼핏보면 구약 성경 같기도 한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확대해서도, 축소해서도 안됩니다.

넷째, 그들의 의는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들이 중심이 된 이기적인 의였습니다.

그들은 헌금할 때 사람들이 들으라고 오랫동안 소리나게 땡그랑 땡그랑 동전을 하나 하나씩 떨어뜨렸습니다. 기도할 때도 골방에서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대로에서 거룩한 표정과 거룩한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의보다 내적인 의를, 부분적인 의보다 전체적인 의를, 재해석된 의보다 본래의 뜻대로의 의를, 이기적인 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은 진정한 은혜의 의가 덮여지길 축원합니다.